

카드사-카카오, 대리운전 시장 확보 '격돌'

업계와 동맹맺거나 모바일 바탕으로 진입 노력

금융·IT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양측의 경쟁이 지금 결제 시장을 넘어 다른 오프라인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대리운전 시장을 놓고 카드사들과 카카오가 격돌하는 양상이다.

1일 카드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신한 카드는 앱카드로 운전기사를 호출하고 이용 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를 개발 대리운전 시장에 발돋움 준비를 하고 있다. 카카오와 같은 IT업계에서는 대리운전 시장에 직접 뛰어 들었다.

정부와 업계 등은 대리운전 시장 규모를 3조~3조5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한 해 대리운전 시장에서 카드 결제 금액은 신한카드에서만 900억원에 달한다.

신한카드는 이미 대리운전 업체 여러 곳과 업무 제휴를 맺은 상태로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준비가 되는대로 지역별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신한카드 이외에도 현재 삼성카드와 하나카드 등도 대리운전 시장 진출을 위해 대리운전업체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카카오 드라이버는 지난 3월7일 대리운전 기사용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기사 회원 모집을 시작했다.

카카오 드라이버는 2분기까지 기사 회원을 모집하고 6월께 승객용 애플리케이션 출시와 함께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카카오 드라이버 관계자는 "카카오 택시처럼 위치 정보 기반으로 호출하고 길안내 등을 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며 "기존 업계와 카드사들과의 연계(카카오 드라이버와) 큰 틀에서는 유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카드업계와 IT업계에서 대리운전 시장을 놓고 벌이는 각축은 모바일을 통한 결제 시장 경쟁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대리운전 시장에 카카오 드라이버가 새로운 진입자로 직접 뛰어 들었으면, 신한카드는 기존 시장 참여자들과의 연대를 형성하면서 경쟁구도를 새로이 형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존 대리운전 업체는 시장에

서 직접적인 신규 경쟁자가 될 카카오 드라이버를 경계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가 시장에 진입한다는 발표 이후 대리운전 업계에서는 군소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반면 대리운전기사들은 카드사들이 기존 업체들과 제휴를 맺으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존 업체에서 대리기사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에 더해, 결제 플랫폼이 업체에 제공되면서 발생하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부담까지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리운전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결제 수수료만 받는 구조겠지만, 업체에서는 이로써 발생하는 추가 부담을 기사들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며 "카카오는 기존 업체들과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카드사들은 기존 업체들과 협력하면서 시장에 뛰어 들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인진수 기자



빠르고 정확하게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육군정보학교에서 열린 제1회 산·학·연·군 협력 드론 전투 컨퍼런스 감시·정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합체기 드론을 날리고 있다.

카카오, 인터넷기업 사상 첫 '대기업집단' 분류

카카오, 셀트리온, 하림 등이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특히 카카오는 인터넷기업으로 사상 첫 대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채무보증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대규모 내부거래나 기업집단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 하림, 셀트리온, SH공사, 금호석유화학, 한국투자금융 등 6개사가 신규 지정됐다.

카카오와 하림은 각각 로엔엔터테인먼트와 팬오션을 인수하면서 등으로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었다. 하림은 지난해 보유주식 가치가 상승해 대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갖췄다.

카카오 기업집단은 카카오와 계열사, 관계사를 모두 포함해 총 45개사다. 카카오는 2014년 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해 자산이 2조780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감사보고서 기준 카카오의 자산총액은 3조9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여기에 올 초 인수한 로엔엔터테인먼트와 계열사 3곳의 총 자산 3700억원에 달했고, 기타 계열사·관계사 자산을 모두 합하면 이달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게 됐다.

국내 인터넷 기업 중 시가 총액이 가장 큰 네이버의 경우 작년 기준 자산 총액이 4조3800억원으로 대기업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네이버는 지금까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적이 없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계열분리되면서, 한국투자금융은 비금융사 인수로 금융전업집단에서 제외되면서 신규 지정됐다. SH 공사는 계열회사 설립으로 기업집단을 형성하게 됐다.

홈플러스와 대성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홈플러스는 대주주가 금융회사인 MBK 파트너스로 바뀌면서 대기업집단 지정 요건에서 벗어났다. 대성은 계열사 자산 매각으로 보유 자산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은 지난해 61개에서 올해 65개로 4개 증가했다.

민간 집단은 52개, 공기업집단은 13개였다. 민간 기업 집단 중 총수가 있는 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등 45개, 총수가 없는 집단은 포스코, KT, 대우조선해양 등 7개로 집계됐다.

공기업집단은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2개 공공기관과 농협으로 구성됐다. /인진수기자

더민주, 20년 채우면 2배 '재형저축국채' 공약

19세이상 · 연 한도액 500만원

더불어민주당이 20년 만기를 채울 경우 원금의 2배를 돌려주는 '재형저축국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만 19세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1인당 연간 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더민주 국민경제상황실 최은열 실장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공약을 밝혔다.

더민주가 공약한 장기 저축용 채권인 '재형저축국채'는 5년물 국채금리로 발행된다. 20년 만기로 금리는 최하 연 3.5% 복리를 적용한다. 최소 보유기간은 12개월이며, 5년 이내에 중도환매할 경우 3개월 분 이자 이익만큼 패널티로 부과한다.

시장에서의 거래는 금지되지만 중도환매는 허용된다. 5년 이후 만기 이전에 환매할 경우 약정금리가 지급된다.

미국의 경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5년 도입한 저축채권이 현재 재무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저

축채권 중 'E-Bonds'는 20년간 3.5% 고정금리가 보장되며 'I-Bonds'는 6개월마다 금리가 조정된다. 더민주는 이와 함께 현재 중구난방인 금융상품 세금 혜택 정책을 재설계 중산층의 장기저축과 개인연금 상품에만 세제 지원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BA)를 예금형과 투자형으로 분리, 가입자가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금형은 만15세 이상(경제활동인구 기준), 투자형은 만19세 이상에 가입을 허용하고 개인당 연간 납입 한도는 1000만원으로 낮추되 서민들의 가입에 큰 장애가 되는 인출제한을 폐지, 자유로운 입출금을 허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상황실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BA)가 국민들의 재산증식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가입대상의 확대, 운용 방식 개선, 인출제한 개선, 금융상품 세제 혜택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성주기자

한국지엠 군산공장, 내수 판매 촉진 활동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지난 1일 내수판매 신장을 위한 판매 촉진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군산지회 삼집구 및 대의원 직공장회, 여직원회, 임원, 부서장 및 사무실 직원 등 노사가 함께 참여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직원들은 군산에서 나고 자란 아들 딸들이 다니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판매촉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I ♥ 세베레 I LOVE 군산'의 마음으로 한국지엠 차를 사야 한다는 내용의 전단지 배부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구독신청 288-9700

창업 · 신성장 산업에 19조원

산은, 벤처에 자금 지원

산업은행이 올해 창업·벤처 등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금융상품 체계를 개편한다.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9조원의 자금을 풀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17억 달러(1조9584억 원 상당)를 지원한다.

산은은 기존의 중복되는 여신상품을 통합하고, 창조경제 전략 부문 특별자금을 20조 가까이 늘려 운용하는 등의 올해 '정책금융 강화방안'을 3일 발표했다.

산은은 주도적으로 다른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가치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와 '신성장 정책금융센터'를 설치하고 미래성장 지원 대상 산업과 기업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진수기자

특히 신성장 평가모형을 업종 분야별로 마련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산업 사이의 지원격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창업·중소 신성장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조경제 전략부문 특별자금은 19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자금을 2조5000억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자금 2000억원 등을 마련해 50bp 우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 저금리 운영 자금 대출, 대출전환우선권을 지급받는 전환사채(CB) 상품과 함께 창업·벤처 기업과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위한 상품도 마련할 방침이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당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이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